

현대차 합작사 모셔널, 운전자 없이 美 일반도로 달렸다

레벨4 수준 무인 자율주행차 주행 운전석 비우고 조수석에 안전요원

2023년 美 차량공유업체 리프트에 최대규모 양산형 로보택시 공급 예정



현대차그룹 투자 합작사 모셔널의 일반도로 무인 자율주행차 주행.

현대자동차그룹이 일반도로에서 레벨 4수준의 무인 자율주행차 주행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미래 경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기술업체인 애플티브의 합작사인 모셔널이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3일 모셔널에 따르면 시험 주행은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대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차로 통과, 비보호 방향 전환, 보행자와 자전거 이

용자가 있는 혼잡 상황 주행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상 무인 자율주행 기술 시험 주행에는 경로 확인과 비상 정지 등을 위해 운전석에 안전 요원이 탑승하지만, 모셔널의 시험 주행에는 운전석을 비워두고 조수석에만 안전 요원이 탑승했으며

별도의 개입은 없었다고 모셔널 측은 전했다.

모셔널은 수년에 걸친 무인 자율주행 기술 혁신을 통해 수십만 명의 인력을 투입, 10만 시간 이상의 자체 안전 평가 과정을 거쳤으며 사전 시험한 거리는 150만 마일(약 241만km)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셔널의 무인 자율주행차 시험은 안전 요원이 탑승한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험장에서 수천 가지의 다양한 주행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

모셔널은 세계적 권위를 갖춘 산업 분야 인증 전문 기관인 TUV SUD로부터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력, 운영능력 등을 검증받아 업계 최초로 운전석을 비워 둔 상태의 자율주행(레벨 4 수준) 기술과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TUV SUD 측은 사전 평가에서 안전성 구조설계 평가, 테스트 절차와 결과의 분석, 시험 절차 평가, 인력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토했다.

앞서 모셔널은 작년 11월 미국 네바다주로부터 일반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시험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 모셔널 최고경영자(CEO)는 “모셔널은 세계 최초로 완전 무

인 자동차를 실현한 기업 중 하나”라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일반도로 시범 운행은 안전하고 신뢰하며 경제적인 무인 자동차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셔널은 2023년부터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의 플랫폼에 최대 규모의 양산형 로보택시를 공급하며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모셔널은 2018년부터 리프트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며 단 한 건의 고장사고 없이 10만 회 이상의 탑승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모셔널은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업계 최고의 혁신적인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보유한 애플티브가 합작을 통해 설립됐으며, 자율주행 기술 선도기업으로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소부장 특화단지 5곳 지정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식'이 열리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손진영 기자 son@

‘백신 기대감’ 소비심리 두달연속 개선

한은,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 97.4로 2p 상승

소비자심리지수가 두달 연속 개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다소 진정된 데다 백신 접종 기대감 등으로 향후 경기나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1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4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심리는 지난해 11월 99까지 올랐다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12월에는 91.2까지 떨어졌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수다. 기준값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6일에 전국 도시 2500가구(응답 2344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조사 기간 중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였다”며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국내외 코로나 확산세 진정과 백신 접종 기대감 등으로 인식이 개선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수별로는 현재생활형편지수가 87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으며, 6개월 후를 전망한 생활형편전망지수도 94로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가계수입전망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소비지출전망지수와 현재경기판단지수, 향후경기전망지수는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9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 CSI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응답자보다 많다는 얘기다. 따라서 두달 연속 지수가 하락하긴 했지만 지수 자체는 100을 크게 웃도는 높은 수준이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정부의 2·4주택 공급대책이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식약처, 화이자백신 16세 이상에 허가권고

내일 중앙약심, 26일 결과공개 “연령·기저질환 관계없이 94% 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화이자백신에 대해 16세 이상에 품목허가를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한국화이자백신 ‘코미나티주’의 투여연령, 안전성, 효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검증자문단)의 논의 결과 전문가들이 16세 이상에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검증자문단 회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허가 심사를 위해 식약처가 운영 중인 3중 전문가 자문회의의 첫 단계다. 이후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최종점검위원회’의 2단계 자문회의가 남아 있다. 중앙약심은 오는 25일 열리며, 26일 결과가 공개된다.

앞서 미국 화이자의 한국지사인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달 25일에 식약처에 코미나티주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검증자문단은 독일(1·2상, 1건)과 미국 등 6개국(1~3상, 1건)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등 2건을 통해 3만6523명 대상의 연구 결과 95%의 예방 효과를 확인



화이자 백신. /뉴스1

했다.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94% 이상의 예방효과를 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 ‘결합항체’의 경우 투여 전과 비교했을 때 대상자 모두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해 ‘혈청전환율’이 100%였다.

안전성 지표에선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백신군에서 20.8%(3915명/1만8801명) 발생했다. 주로 주사부위 통증, 발열,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었다.

약물 관련 과민반응인 두드러기는 1건 발생했다. 약물 관련 아나필락시스 반응(항원-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된 급격한 전신반응)은 임상시험 기간 중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 백신군 0.6%(126명), 대조군 0.5%(111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백신 투여와의 관련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백신 투여 어깨부위 상처 등 4건이었다.

검증자문단은 이러한 효과 및 안전성이 16세 이상 대상자에서 확인되도록 임상이 설계된 점을 토대로 16세 이상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검증자문단은 “제출된 자료에서 효과가 확인됐고 면역반응도 자연감염 시의 완치자 혈장 내 항체보다 높게 유지돼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며 “또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등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는 꾸준히 정보를 수집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개진했다.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과거 아나필락시스 병력(기왕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종 후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원심미 기자 silverbeauty@

작년 카드 해외사용금액 103억 달러… 46% 급감

한은, 코로나19에 출국자 85% ↓ 원·달러 환율 상승 등도 원인

작년 카드의 해외사용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출국자 수가 급감한데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자의 신용·체크·직불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103억1000만 달러로 2019년(191억2000만 달러)에 비해 46.1%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인 출국자 수가 전년 대비 85% 줄었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사용이 전년 대비 48.6% 줄었고,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도 각각 39.2%, 41% 감소했다.

사용카드수는 4930만장으로 전년 대비 31.4% 줄면서 지난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장당 사용금액은 209달러로 21.4%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